통권 148 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4. 2. 5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비전향장기수를 즉각 송환하라!

장기구금양심수들의 전향무효선언 3돌을 맞아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명동 향린교회에서 2차 송환 희망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음. 송환희망자 가운데 서옥렬, 방장련 선생님의 사례발표를 통해 송환촉구 발언도 있었음. 〈사진: 통일뉴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회장 • 2 / 이달의 시 해방글터 • 5 / 특집 I -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한 기자회견 • 6 / 특집 II - 다가오는 통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 10 / 감옥에서 온 편지 조현수 청송군 농민회 • 12 / 감옥에 보내는 편지 김혜순 회원 • 13 / 이런 회원 - 이용준님을 만나 이승미 편집위원 • 14 / 산행기 김재현 회원 • 16 / 회원산년모임 후기 김혜정 간사 • 17 / 시사만화 • 18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19 / 재정보고 • 27 / 회비납부 • 28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874-4063 **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naver.com
민가협 :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민간통일운동 탄압중단하고 민경우사무처장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라

권오헌 회장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마치 도맡아 하는듯한 공안검찰이 진정 검사가 갖추어야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당한 범죄수사나 공소제기 등 고유임무를 뛰어넘어 자주 평화통일이란 국가정책의 최고가치를 짓밟고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등 반통일 반인권 행패를 벌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서울지방 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월 16일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립, 전달했다는등 터무니 없는 죄명을 씌워 구속기소 했다. 공안당국은 그밖에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했고, 또 그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 또는 소지, 보관했으며 반국가 구성원과의 통신연락 금품수수등을 했다며 장장 116쪽 40항목에 걸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내용으로 공소 제기 했다.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한 이같은 공소내용은 그저 웃어 넘기기엔 너무나 반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몰상식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들이야 말로 박제된 사고와 고정관념 상투적인 냉전잣대와 편견으로 가득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공안검찰이 이렇게 짜맞추는 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려는 것인지 그 모순점을 하나 하나 짚어보기로 하자.

먼저 공안검찰은 민경우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씌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상투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바로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동안 실컷 우려먹었던 이같은 전제조건도 6·15 공동선언 시대에는 빛을 잃게 되었다. 아니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이북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란 것을 확인했었다. 남과북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최고정상이 만나 6·15 공동선언까지 합의하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남북 사이에는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당국자 회담이 정례화 되고 있는가 하면 경의선, 동해선이 이어지고 1년에도 수만명이 북으로, 남으로 가고 오고하지 않았던가.

그 다음으로 재일 조선인총연합 (총련)에 대해서도 '일본을 거점으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남공작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임의규정 했다. 한때 남북 사이뿐 아니라 같은 재일동포이면서도 '총련' 이나 '민단' 쪽이 서로 적대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두 쪽 다같이 일제 식민지 지배의 비극적 산물로서 이국땅에서 동포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핏줄이다. 또한 '총련' 은 대남공작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급조된 불법단체가 아니라 동포사회에서의 조국분단으로 빚은 결과물일 뿐이다. 이들 두 동포사회 또한 7·4 공동 성명과 6·15공동선언 이후 화해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심지어 총련 동포들이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남쪽 고국을 찾고 있었지 않았던가. 이북이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듯이 재일 조선인총연맹 또한 화해 협력시대,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공안검찰은 또한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회장인 안경호 범민련 북측의장과 김령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를 이번 민경우 사무처장 구속과 관련 무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지목 하였다. 남쪽의 당국자나 수많은 민간통일운동 단체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특히 김령성 참사는 장관급회담 북측단장으로 여러차례 남쪽에 왔었던 사람이 아니던가. 아무리 냉전사고로 가득찬 공안검찰 이지만 이렇게까지 무례할 수 있단 말인가. 민경우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씌우기 위

해서는 또 한사람이 거론되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 사무부총장 이었다. 검찰은 박용 부총장을 '조총련의 대남공작원' 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바로 민경우 사무처장과의 통화 대상자였다. 그러나 민 경우 사무처장과 박용 사무부총장은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 7·4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는 범민련 성원들 관계였고, 특히 두 사람은 사무국요원으로서 남북화해의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창구이기도 했다. 그렇다하여 남쪽을 헐뜯고 북을 동조한다거나 반통일 반민족행위를 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의 윤활유 역할을 해왔었지 않았던가. 그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자 사이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 창구를 통해서 해결한 예를 당국 스스로도 알고 있을 터이었다.

이제 공소내용의 중요항목을 예로 들면서 공소의 부당성을 짚어 보기로 한다.

첫째, 이른바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전달 항목이다.

공소내용 2항에서 검찰은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준비위의 조직체계 결성선언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남측 준비위 연석회의 결과와 2000년 통일대축전의 진행상황 등을 국가 기밀 이라고 했다. 그러나 열거된 모든 것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또 공개되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축전행사가 무슨 국가기밀이 된단 말인가. 특히 통일운동을 함께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사무국 사이의 진행상황 등을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인터넷시대 정보의 세계화 시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무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을 국가기밀이라며 심지어 '간첩' 이란 용어까지 쓰다니 제정신이 있는 검찰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러한 국가기밀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결성추진 관련도 포함되고 있었다(공소내용 9항). 해도 너무하다. 무슨 해명이 필요 하겠는가? 통일연대와 민화협 7대종단은 이미 민족공동행사 추진기구를 두고 여러차례 서울과 평양 금강산 등에서 6·15, 8·15, 3·1절을 맞아 통일대축전과 민족통일대회를 열고 있었다. 공안당국의 허가를 받고 행사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불법단체를 결성한 것도 아니고, 남쪽 정부를 음해 공작한것도 아닌 것을 아니 정치 경제 사회 군사등 정말 외부세계에 알려서는 안될 진짜 기밀도 아닌 것을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이라니 과연 공안검찰은 국가의 기밀 개념이라도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국정원 공안검찰 보안수사대를 해체하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는 이렇게 반역사적 반통일적 사고와 냉전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려는 맹목적 몰가치성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찬양·고무 혐의이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라 했던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기도 하다. 바로 공안검찰의 임의해석에 따라 범민련 의장단 회의나 간담회 그 외 무슨 회의 등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농성 범민련 결성 10주기 기념식 등에서 박수치고 결의하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동조 한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논박할 가치조차 있겠는가!

셋째, 공소장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연락 혐의' 이다.

여기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위에서 말한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 사무부총장을 말하는데 범민련 사무국과의 통화는 남과북 해외동포가 조국통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박용 사무부총장의 총련 소속여부는 알수 없지만 설령 총련 소속이라도 사상·이념·정견의 차이를 넘어 남에 살던 북에 살던 해외에 살던 우리 민족으로서 자주통일 하자는데 소속단체가 문제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쪽을 뒤엎고 파멸시키려 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 행위가 되겠지만, 범민련 발족이후 남과북 해외 3자연대가 걸어왔고 지향해 온 것은 6·15 공동선언 이행이 아니였던가. 오늘 이시간에도 당국자 사이는 물론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북과 이런 저런 교류협력을 하면서 통신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시대착오적인 공안검찰의 냉전잣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했다는 혐의이다.

바로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기관지 민족의진로 라던가 자신들이 걸어온길 '범민련 10년사' 또는 행사 자료집 등을 제작 배포 했다 해서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혐의를 씌우고 있었다.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 자체가 시대정신에 어긋나고 특히 6·15공동선언 정신과 배치되고 있거니와, 그러한 출판물은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과 지향점등을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표현 방식이 아니겠는가. 만일 공안검찰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 판매 행위가 될것이다.

다섯째, 이른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

이는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를 기념하는 티셔츠를 만들었고 통일달력 3대헌장 기념비모형, 민족의 진로 등을 공동사무국에 보내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 이 자체가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위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져간 이른바 이적표현물 소지 보관혐의는 사상·양심과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몰상식의 행패이기에 여기에서는 긴 말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민경우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들은 대부분 범민련활동과 관련돼 있었다. 그렇다면 범민련은 과연 이적단체가 될 수 있는것인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은 1990년 8·15 제1차 범민족대회에서의 공동결의에 근거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통일애국세력의 연합을 확대 강화하고 남에 있던 북에 있던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1991년 1월 23일 고 문익환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30여 정당사회단체가 함께하여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었다.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결성된 범민련은 냉전공안당국의 끊임없는 부당한 탄압이 이어오면서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구속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범민련은 남·북 어느 쪽(정권)에 대해서도 적대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동조 추종하지 않았다. 오직 남·북의 화해협력과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한 활동을 했었다. 1990년 베를린에서의 '남북대표 공동선언을 보면 남북의 각 계각층 민중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루는 것은 조국통일과 민족자주권을 되찾는데 의의가 있다' 했으며 통일문제를 어느 특정정파나 계층 위주가 아니라 민족공동 이익에 맞게 각계각층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 나가야 할것이라 했다. 이렇게 범민련은 남·북·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조직, 통일문제에 관련한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며 합리적인 통일방도인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하곤 했다. 이러한 요구·주장·선언이 탄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터이었다. 범민련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강령만 보더라도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실천한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바로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 통일국가를 수립한다고 했으며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운동을 벌여 나간다고 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며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했다. 그리고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한다고 했다. 어느 하나도 이북을 이롭게 하고 이남을 해롭게 했거나 이북을 찬양·고무하고 이남을 헐뜯는 데가 없다. 더 이상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묶어 두어서는 안될 것이고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합법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민간통일운동 탄압 당장 그만두고 민경우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

통신의 자유 침해하는 불법 도.감청 그만두고 간첩조작 음모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범민련·한총련·한청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

슬픈 밥상

'해방글터'

육십 넘은 어머니는
주야 맞교대 섬유공장에 다니신다
하루도 손에 약을 놓지 못하시는
어머니가 나는 늘 걱정이다

서른 넘은 나는
주야 브레이크 공장에 다닌다
잔업, 특근을 해도 백 만원이 되지 않는 월급으로
네 가족이 먹고살기엔 언제나 허기져
그런 나를 어머니는 늘 안쓰러워 하신다

어머니는 불법적인 이교대가 없어지고
머지않아 삼교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에, 적어질 월급 걱정이고
나는 주 사십 시간 쟁취를 포함한
오월 총파업에
부끄럼 없이 싸울 수 있을까 걱정이다

내겐 언제나 눈물 같은
어머니를 위해 투사의 길을 가고자 했고
어머니는 그 눈물로써 나를 말리셨다
공장에 다니는 어머니와 나는 아무 것도
일치되는 게 없다
가끔씩, 손주들과 함께 한 저녁 밥상에서
젖은 눈으로 밥알을 씹으며
서로를 위로할 뿐이다.

'해방글터'는 노동자들의 시 창작 집단입니다.

6 · 15 공동선언 합의(사항)이다.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다시 촉구한다.

수십년동안 감옥에 갇혔다 풀려났으나 공안당국의 감시와 통제로 고단한 삶을 살아오던 장기구금 양심수들이 강제전향의 무효를 선언하며 가족이 있는 북녘고향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나선지 3돌을 맞고 있다. 그러나 6 · 15 공동선언을 이행하며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참여정부는 아직도 공동선언 합의내용인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과 관련 아무런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는 이미 여러차례 관계당국에 2차 송환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촉구한 바 있거니와 이같은 당국의 합의사항 이행의 소극적 자세를 지적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함을 다시 촉구한다.

첫째,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남북 최고 당국자의 합의사항이다. 6 · 15 공동선언은 제3항에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등 인도주의 사업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의) 송환의지가 있는 비전향 장기수가 있는 한, 송환사업은 한번으로 끝날 수 없는 계속사업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1차 송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당사자가 앞으로 나타날 경우 지체없이 송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2차 송환 희망자 가운데는 비전향 장기수이면서 송환과 관련된 정보와 통보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이 어떠한 시간 제약을 규정한 것이 아닌 이상 2차 송환사업은 당위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둘째, 본인의지에 반해서 강제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 따라서 강제전향자는 비전향장기수로 간주하여 마땅히 송환대상자이어야 한다. 1차 송환때도 문제로 되고 있었던 정순택, 정순덕 노인을 전향을 했다 해서 제외시킨 것은 인간 내면의 양심을 무시한 채 형식논리에 치우친 본질적 내용을 호도한 행위였다. 이 두노인을 비롯한 2차 송환 희망자 상당수는 형식상 '전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들이 말했듯이 삶과 죽음의 한계 상황으로까지 이르는 살인적 고문등으로 강제 전향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사상전향제도의 위헌성을 들어 폐기시켰으며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도 비전향 장기수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잔혹한 고문 등 강제전향 공작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확인하면서 강제전향의 위법성을 밝힌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78차 회의에서도 사상 전향제도가 인권규약 제 26조 평등권과 18조 1항 사상, 양심의 자유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잘못된 법과 제도가 인권 침해 등 위헌성으로 폐기되었다면 이러한 법과 제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마땅히 따라야 하고 2차 송환 희망자들은 당연히 송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인간의 기본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2차 송환 희망자 가운데는 전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쟁포로 출신 13명도 있다. 전쟁포로는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학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치욕적(전향강요도 포함된다)인 대우와 부당한 재판, 형의 집행도 당해서는 안되었다. 또한 적대 행위가 끝난(정전협정) 60일 이내에 북송되어야 했던 신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포로가 아니라 해도 송환희망자 모두는 세계 인권 선언 13,14,15조가 규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국적 회복)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조에 규정된 자국

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퇴거할 권리를 갖는다. 2차 송환 희망자들이 오랜 감옥에서 풀려나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는 곳으로의 송환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넷째,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은 이제까지의 반목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어 놓았다. 남과 북은 결코 다른 나라가 될 수 없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 책동에서도 자주와 평화통일의 길을 가야 한다. 이 시간 남과 북 사이에 13차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당국 사이뿐 아니라 민간 부분의 교류 협력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더 이상 이북을 냉전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되고 논리성도 현실성도 없는 대결을 전제로 한 상호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 여러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의 그 애절한 장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수십년을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헤어져 고통을 받아온 가족들의 재결합은 바로 인도주의 정신이고 동포애 정신이기도 하다. 2차 송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70살이 넘은 노약자들이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김태수, 김경선, 장광명 노인이 평생의 염원을 못본체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을 촉진하고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29명을 조건없이 송환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2월 5일

비전향장기수 송환촉진위원회

[사례 발표 1]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촉구한다

아래의 글은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 기자회견장에서, 2차 송환 대상자이신 광주에 계신 서옥렬 선생님과 강원도 고성에 사시는 방장련 선생님이 사례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2001년 2월 6일 가톨릭회관에서 강제 전향 무효선언 및 2차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때로부터 벌써 3년 세월이 지나고 4년째로 접어든다. 애면 여러차례 정부당국에 송환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의있는 답이 없다.

뿐만아니라 "비전향자는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송환을 촉구한다.

전향 테러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존권조차도 위협당한 상태에서, 나아가서는 다 죽어가는 빈사의 환자에게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찍힌 백지위 무인으로 만들어진 전향서는 무효임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암흑의 지하감방! 곤봉, 칼, 일본도, 권총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담요를 뒤집어 씌어놓고, 수일씩 굶긴 상태에서 급소만을 골라 구타한 다음 초죽음 상태인 사람 손을 끌어다 백지에 무인 찍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한 전향서는 완전 무효임을 다시한번 공개선언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2년에 최석기, 박융서 선생 등의 사망원인을 전향테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행한 전향서 쓰기는 무효임을 다시 천명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이 인정하고 판정했는데도 통일부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그것을 부인하고 비전향 장기수는 없다고 한다. 참으로 가소롭고, 소가 웃다가 꾸러미 터질 일이다.

핏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그래서 민족은 하나. 수려한 금수강산에서 반만년 오랜 역사속에 오순도순, 아기자기 살아온 우리 민족!

민족적 자주성과 자존심을 세계에 과시한 으뜸 민족!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있다. 지체없이 통일되어야 한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6.15공동선언을 발표, 선언하였다.

자주적이고 평화적 통일의 원칙을 밝혔고, 우리민족

끼리 힘을 합쳐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하기로,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함께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1회용 선언인양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끝났다고 한다.

2차 송환을 신청, 요구하고 있는 우리 32명은 모두가 70세, 80세 이상의 고령과 혹심한 옥고로 인한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국의 무성의와 보안관찰법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 생활로 인하여 여생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2001년 2월 6일 2차 송환촉구 후 3년에 벌써 3명이 사망했다(김태수, 김경성, 장광명). 기약없는 죽음을 앞에 하면서 고향으로, 또 처자가 있는 북녘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인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 등을 거론할 것도 없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2차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즉각 무조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2월 3일부터 6일까지 13차 남북장관(상)급회담이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이 회담이 6·15 공동선언의 산물로 계속되고 있듯 비전향장기수 송화도 2차, 3차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4. 2. 5.

2차 송환 촉구 3돌을 맞아

서 옥 렬

[사례 발표 2]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촉구한다

6·25 전쟁에 정규군으로 참전하였다가 퇴로가 막혀 지리산에서 빨치산 전투를 하다 잡힌 인민군 포로들이다.

빨치산이란 러시아어가 어원인 유격대 또는 유격대원이라는 뜻이다. 현대전에서 보편적으로 전개되는 필수의 전투 방식인 것이다. 유격전을 하였다고 포로의 신분에 시비를 거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조소와 망신만을 자초한 어거지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제네바협약 제4조 A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될 수 없는 절대적인 국제법상 전쟁포로들인 것이다.

해방전사 신분의 북에 있는 국군 포로와 불법으로 억류당하여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인민군 포로들과는 상호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53년에 공화국으로 송환시켜야 할 포로들을 불법 억류하여 고문과 기아로 죽이고 사형선고로 죽이고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포로들을 다시 잡아다가 없애는 등 엄중하게 국제법을 유린함은 물론 전대미문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데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응분의 법적 책임과 지체없는 송환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우리의 주장 ●●●

1. 광주 제1·2 포로수용소의 정문에는 '포로수용소'라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으며 포로의 등짝에는 P.W(전쟁포로)의 표식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을 느닷없이 감옥에 가두고 당치않은 법에 걸어 재판한 것은 인류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인 사기행위이며 범죄 집단 만이 할 수 있는 폭거이며 중대한 전쟁 범죄행위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2. 정전협정 당사국의 군인 신분에 국가보안법이나 특별조치령이라는 법이 적용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무고한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며 학살한 반공 광란극을 분별없고 무식하게 포로들에게

감행한 야수적 만행은 스스로 제 나라의 법의 가치와 존엄을 삼류국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으로 될 것이다.

3. 포로들이 받은 재판은 위법 투성이의 한심한 재판이다. 군인 신분에 군법회의도 아닌 민간 법원에서 국제법도 아닌 국내법으로, 변호인도 없고 미결 통산도 없이 오랜 기간 미결로 감금한 위법 등 적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재판이었다.

4. 정전협정 제 3조 51항 2의 규정에 의하여 1953년 7월 27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송환, 인도되었어야 할 포로들을 징역을 살려 보복하였으면 송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범치의 상식일 것이다. 감시, 미행, 연행 등의 고통으로도 모자라 사회안전법이라는 괴상한 법으로 괴롭히더니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서 행방불명된 것이다. 남녘 동포들의 정어린 배려로 귀한 집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단란하게 살고 있던, 어린 자녀들의 다정한 아빠를 백주 대낮에 끌고 감으로써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어, 새색시가 과부가 되고 철부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는 국가사회의 파괴행위가 반공을 내세우면 정당시된다는 것인가?

5. 야만인들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온 사상전향 제도를 조롱하며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는 민주주의를 거역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부끄럽게 하는 법이고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포로들이 소년 단원이나 민주주의 청년동맹원이었기 때문에 사상전향서를 썼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민주주의 사상에서 사회주의 사상 또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향시켜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6.나라와 민족을 야만의 아수라장으로 전락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비극을 겨레에게 안긴 범법자와 전쟁 범죄자들을 가려내어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며 희생되어 간 포로들과 살아남은 포로들에게 사죄와 함께 응분의 법적 배상을 하여줄 것을 요구한다.

7.포로들에게 불법적으로 들씌운 국가보안법, 특별조치령 등 위법을 철회하여 무죄로 환원시키고 포로의 신분으로 지체없이 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족과 함께 송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8. 조속한 송환작업이 사실상 어려울 때 불법억류와 전쟁범죄의 책임을 통감하고 포로들에게 우선적으로 자유, 왕래의 권리를 부여하여 포로들이 지체없이 북쪽 가족과 상봉하여 생사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

2004년 2월 5일
방 장 련

감사드립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김영식 선생님께서 날씨도 추운데 합천 과수원에 가시어 애써 일하신 품삯 1,000,000원을 양심수후원사업에 써달라며 몽땅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 문경에서 지역운동과 환경운동 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계신 박문성 선생님(회원)께서 양심수 후원사업에 보태쓰라고 1,2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옴시롱감시롱에서 1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활동비 500,000원을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로 써달라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통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향후 통일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다.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 정세가 갖는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0년대 중국 경제의 성장이다.

78년부터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이다. 사회주의권의 몰락, 92년 남순 강화, 한중 수교 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주로 홍콩과 연계하여 동남아의 화교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전념했는데 90년대 초반 무렵부터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90년 미국, 일본, 홍콩,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각각 53억불, 92억, 272억, 4억불이었는데 96년의 수출액은 267억, 309억, 329억, 75억불로 성장한다.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수출액이 크게 늘어났고 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한·중간 무역량도 괄목하게 성장했다.

위의 사실은 90년대 초반 91년 12월 합의서로 대표되던 통일정세가 유실된 것과 관련하여 커다란 아쉬움을 갖는다. 북이 90년대 초반 추진했던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외자 유치액이 1억 달러가 채 못 되는 것과 비교하면 90년대 초반 동북아시아의 무역, 자본의 흐름이 남북,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으로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 북은 선군정치,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고 남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주영, 김우중 등이 주도했던 대북 경제 협력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남이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 흐름에 보다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 또한 짙게 남아있다.

둘째, 90년대 후반 이후의 중국 경제의 약진이다.

90년대 후반부터 중국 경제는 태풍의 눈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개괄해 보면

1. 중국 경제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벗어나 자본,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오고 있다. 인형, 섬유, 가발 등의 경공업이 아니라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가 중국에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한국의 자동차기업(쌍용)을 중국 기업이 인수하는 양상은 최근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이다.

2. 중국의 성장에 따라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배타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면 중국은 경제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동아시아 경제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변화 조짐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입이 급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과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99년 12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11월까지만 40억불로 홍콩,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내수 위축에 따라 정작 한국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대신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렸던 것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동력으로 자리 잡은 수출의 경우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을 늘린 점과 철강, 해운, 조선 등 중국경제의 엄청난 성장에 따라 부스러기(표현이 정확하지 않지만)를 줍는 형국이다.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끄는 동력은 소수 재벌, 공공 기업 중에서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인 중공업, 반

도체, 핸드폰, PDP 등의 첨단 산업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인데 이들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포스코의 철강 등이 큰 폭의 수출 신장으로 한국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면 외국인들은 이들 기업의 주식매입을 통해 과실을 빼내가고 있다. 참고로 작년 말 주가상승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얻은 평가 차익만 18조이다. 금융에 관한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 산업구조와 시장이라는 차원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워낙 빠르니 중국은 이를 무기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 문제는 중국이 그 동안 움추렸던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다.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첫째,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대한 중국의 동아시아 통합전략(중국과 아세안 FTA, 한중일 경제협력), 자주회교(최근 중 · 프 정상회담 등)는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한국 자본의 중국 진출은 가능한 북으로 돌려야 한다. 이를 통해 무역과 자본의 흐름을 최대한 한반도로 이동시켜야 된다.

셋째, 중국의 대국화 경향에 기초한 남북 분할 견인 전략은 민족 공조를 통해 제어해야 한다.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분들께

저는 서울구치소 70번 김상록입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지난해 노동자대회 건으로 구속 수감 중입니다.

한번도 뵌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소식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셨더군요.

고맙습니다. 소식지는 잘 보았고 영치금은 소중히 쓰겠습니다. 2004년 갑신년에는 이 땅의 모든 양심수들이 가족의 품으로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해봅니다. 건강하십시요.

2004.1.22 김상록 드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어르신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3년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지내다 작년 10월경 수배조치되어 생활하던 중 12월 19일 자진출두하여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96학번 이희택이라고 합니다. 우선 늦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전합니다.

양심수라는 칭호가 저에게는 과분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영치금 1만원'과 세상 물정을 알게 해주는 '소식지'는 저의 육체적 · 정신적 활동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녹록치 않은 사정 속에서 저에게까지 손길을 미쳐주신 후원회 어르신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직 27살이라는 청춘의 나이일진데 여러가지 고민되는 게 참 많네요. 가끔은 세상 좋아진 덕에 이곳 구치소 생활이 호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선배들이 이곳에 남겨놓은 족적을 되집기도 하면서, '원칙'과 '타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순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굳은 심지의 운동가가 아니다보니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언제나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시대의 양심을 지켜가시는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 편지를 줄일까 합니다.

2004.1. 이희택 드림

우리 모두가 밥 한그릇의 소중함을 알게되기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분들께 드립니다.

2004년의 해가 새롭게 뜨기 시작한지 벌써 3주가 다 되어갑니다. 1년의 설계와 희망을, 다가오는 영농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많이 답답하지만 저를 지켜봐주시는 이 땅의 모든 애국민들의 관심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3년 6월 20일에 있었던 농민대회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18일 경북 의성 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 이곳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어 고등법원에 항소중인 전농 청송군농민회의 조현수라고 합니다.

이 땅 5천만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애국 애족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 나라의 어느 정권도 농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봉'으로만 여길 뿐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농업과 농민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대로 우리의 생명이요, 민족의 젖줄인 농업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농업을 지켜낼 것입니다.

후원회 가족들이 보내주신 영치금과 책자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보고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후원회원들과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받아들고 제가 과연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도소라는 곳에 갇혀있으면서 처음에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두려움은 바깥세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세상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잠시일 뿐, 사실은 더 넓고 큰 세상을 알게 되고 그 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애써 외면하거나 눈감았던 것들을 다시 알고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먼 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면회를 오시는 회원 동지들과 이름도 얼굴도 모르면서 편지를 보내주시며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농민들이 있기에 저는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민족의 명절인 설이 되면 또 다시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 갑니다. 설,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이며 뿌리인 농촌으로 내려가지만, 늘 농촌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의 소중함과 밥의 중요함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더욱 추운 것은 TV를 보면서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의 온갖 비리와 부패한 모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중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정부패에 찌들어가는 그들을 반드시 응징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참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온몸을 바쳐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동지들과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절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늘 건강에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2004년 1월 18일
대구교도소에서 조현수 드립니다

'6 · 20 농민대회'에 참여했다 구속된 조현수 님은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민족의 젖줄인 농업을 지켜내시는 선생님!

청송군 농민회 조현수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후원회원 김혜순 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편지를 올리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계신 탓에 농민회 회원 분들의 구속 소식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입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듣는 뉴스에서는 우리 식탁이 외국산 농수산물에 의해 빠르게 점령당하고 있고, 식량 자급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니다. 서울 중산층의 경호네 가족의 식단에는 나물은 중국산,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두부는 미국산 콩으로 만든 것으로 절반 이상이 외국산 농수산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80년대 70%에 달했던 식량자급률은 지난 2002년 사상 최저인 47% 대로 급락, 2010년에는 4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랍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외국산 농산물이 서서히 우리의 식단을 조여 오는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큰 식량위기를 가져올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여름이면 다래를 따먹고 목화솜을 따고 초겨울이면 그 목화솜에서 무명씨를 고르곤 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딸이 넷이나 되었던 저희 집에서는 그 목화솜을 모았다가 언니들 시집갈 때 이불솜을 타곤 했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밀가루를 빻던 공장(방앗간)의 기계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하얗게 밀가루를 뒤집어쓰곤 했었습니다. 그것이 70년대 초반의 일인데 목화나 밀은 이제 관광용으로 재배될 만큼 우리 논밭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전량을 수입하지요. 이제 우리 주식인 쌀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에 친정에 내려가서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은 소작료를 받는 것보다 휴면 보상금(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정부에서 평당 얼마씩 보상을 해주는 제도)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사를 짓기보다는 자꾸 땅을 놀리라는 정부의 보조금제도는 한치 앞도 못 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영농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공산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다 농업의 구조조정(곧 폐업이 되겠지요.)을 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벼농사가 단순히 쌀을 생산하는 것만 아니라 물을 오랫동안 저장해 서서히 흘려보내는 담수의 역할을 하고 홍수도 막아내며 공기청정기의 기능도 하는, 우리 농업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의 어느 정권도 농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을 '봉'으로만 여길 뿐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농업과 농민을 죽이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의 급식도 2,3년 묵힌 쌀이나 중국산 먹거리로 부식을 먹인다 하니 건강인들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희 둘째 아이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할까 하고 물으면 씀바귀요 하고 대답하는 신토불이지만 언제까지 제가 아이의 먹거리를 우리 땅에서 나는 안전한 것으로 먹일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요, 민족의 젖줄인 농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시는 선생님과 농민들의 힘찬 투쟁이 있는 한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지요!!

낼모레 2월 5일이면 정월대보름날입니다. 시골에선 쥐불을 당겨 1년 농사를 준비하고 길굿으로 집안과 동네 곳곳을 돌며 묵은 때를 씻고 대동세상을 꿈꾸는 아주 정겨운 명절이지요. 이렇듯 1년 농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집을 떠나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계절이 때를 잊지 않고 찾아오듯이 선생님께도, 가족 분들께도 희망의 소식 곧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것도 아니고 쓰러져가는 농업을 살리겠다고 일손 마다않고 싸우신 분인데 1년 6개월 형이라니 정말 말도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내일이 입춘인데 아직도 한겨울 추위가 매섭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004년 2월 3일

양심수 후원회 회원 김혜순 올림

딱 하나라도 활동할 수 있는 후원회원이 되었으면…

이승미 편집위원

종종 이 나라꼴이 참으로 한심스럽단 생각을 하게 된다. 경기는 좀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연일 일어나는 비리는 무슨 선거만 있으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세 살배기 어린애도 공감할 수 있을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에 제동이 걸렸을 때는 벌려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 한때 크게 일던 통일 열기가 요즘은 어째 잠잠해진 듯하다. 분단의 해소는 분명 끝도 없이 많은 이 땅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에 고리 역할을 해줄 텐데, 여전히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이 자꾸 앞길을 막는다.

민경우 님, 이종린 선생님이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다. 1월28일에 있은 두 분 '무죄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장에서 이용준 회원님을 만났다.

이용준 회원님을 만나면 그의 씩씩하고 밝은 모습에 늘 기분이 좋다. 행사장 입구 구석에 인터뷰 자리를 잡아 앉자마자 그는 가방 속에서 부스럭대며 빵부터 꺼낸다.

"2월1일에 있을 고성 마라톤대회에 나가 잘 뛰려면 빵 많이 먹어두는 게 좋거든요." 빵에 들어있는 글리코겐 성분이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소 거의 서울말씨라 눈치 못 챘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부산 토박이였다. 76년, 1남2녀 중 막내로 출생하여 95년 부산외국어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운동권 선배들의 인간성에 반해 1학년 말경 총학생회 선거일을 도왔는데 이를 계기로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한 학생운동은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장, 과학생회장, 단대장 등을 두루 거치고 4학년엔 '한총련 불탈퇴'로 구속되어 3개월간 복역까지 했다. 그리고는 1년간 학교에 더 남아 후배 지도 등을 했으니 이 정도면 골수(?) 학생운동권 출신이라 칭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모순이 대학 캠퍼스 내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더군요. 4학년이 되어서는 결국 수배를 각오하면서 단과대 학생회장을 맡았는데, 당시 한총련 탈퇴 및 반성문 제출 압력이 대단했었지요…"

갈등도 했지만 끝까지 양심을 지켜낸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그를 보며 어렵사리 한총련 조직을 지켜내고 있는 이들을 떠올리게 된다. 격려를 보내줘야 할 사람들이다.

99년에 서울로 이사 온 이용준 회원님은 추계예술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하며 15개월간 한국종합예술학교 근무를 했다.

"예술경영을 공부하면서 천박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더욱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를 건강한 문화로써 극복해보자는 생각입니다."

공연 기획 등을 통해 거대한 자본주의적 문화의 물줄기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꿈인 그는 운동의 목적의식이 담긴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졸업논문 제출을 남겨두고 200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익근무를 하고 있으며 올해 8월이면 복무 기간이 끝난단다.

이용준 회원님의 노래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다. 기회만 닿으면 멋지게 한곡 뽑아내는 그는 참 낙천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그의 굳은 운동적 신념과 낙천성은 아마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의 신앙심이 뒷받침되어 있으리라.

"세살 때 유아세례를 받았고 자라면서 계속 신앙생활 했어요. 운동하면서도 종교에 대한 갈등 같은 거 없었습니다. 천주교는 인간의 다양성,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이것이 곧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신의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만나 좋은 인간관계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1년 겨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있던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 농성장에서 이용준 회원님을 처음 만났었다. 노숙한 모습으로 농성에 함께 했던 그의 실제 나이를 후에 알고는 흠칫 놀랐던 게 기억난다.

"한때 운동을 멀리하려 했었어요. 01년 12월말 학교일도 한가해지고 직장생활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무렵 명동성당 농성에 함께 하면서 양심수후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애 선배님 소개로 역사강좌에도 가면서 더욱 가까워졌지요."

후원회 주최의 '국보법철폐 토요집회' 등에 참여하면서 운동을 멀리 하려 했음에 자성하게 되었다는 그는 이 단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 한다.

"양심수후원회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회원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회원들이 뭐든지 딱 한가지라도 활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이 땅의 모순이 존재하는 한 자신은 평생 운동적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그가 참으로 듬직하다.

실제로 그는 올해부터 후원회 시사모임 대표를 맡아 일하기로 결의했다. 제각기의 삶에 바쁜 분위기 속에서도 이곳저곳 모습을 보이며 회원들을 고무시켜 주고 있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바라는 바'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가난한 삶, 겸손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비뚤어진 역사가 바로 잡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후원회 회원들 모두 다 잘 되었음 좋겠고…"

시사모임, 강좌사업 등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의 소박하지만 결코 소박하지만은 않은 소망들이 모두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

지치지 말고 적당한 속도의 행보로 후원회의 만년 회원으로 남아 건강하게 함께 해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산행 안내

도봉산에 오릅시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와 경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나는 봄날,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긴 기지개 하면서
멋진 산행을 했으면 합니다.

언 제 2004년 2월 22일 아침 10시
모이는 곳 우이동 종점 그린파크 앞
갖출 것 따뜻한 옷,맛있는 먹거리, 회비 3,000원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김재현 회원, '음시롱감시롱' 회장

'양심수?, 양심수가 뭐지???

내겐 참으로 생소한 단어였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양심수', '양심수후원회'를 알게된 것은 1997년 늦은 가을 어느 날, 고창 선운사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문화역사 탐방 기행이라고해서 참 괜찮은 여행일거라는 생각에 무작정 현숙이를 따라 나선 길이었지요.

그렇게 인연을 맺은 게 어느 덧 7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가슴 떨리던 단어 하나하나들이 이제는 다정한 친구처럼 내 곁에 있음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1월18일은 북한산후원회을 오르는 후원회 산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용준 회원과 약속을 하고 집을 나서는데 날씨가 무척이나 흐리고 잿빛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을 뿌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만 해도 눈이 오지 않더니 경복궁 전철역에서 지상으로 나오니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야! 눈이다, 눈 온다…"

기뻐하면서도 산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반신반의 걱정도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용준이에게 눈이 이렇게 와도 산행을 해야 하나 물으니 "이런 날엔 거의 막걸리 파티가 일찍 열리지 않을까요?" 합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눈이 와서 그런지 참석자가 조금 적어 보였습니다.

권오헌 선생님을 비롯해모두 아홉분이 산행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앞도 분간 못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결국 정상까지는 못가고 중간에서 하산을 결정했지만 눈 오는 북한산의 설경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온통 하얗게 덥힌 세상을 발아래 굽어보니 마음이 비워지는 게 부질없는 욕심에 부끄러워지더군요.

설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눈밭에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웃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 눈덮힌 산행은 위험과 고통을 동반하지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삶의 겸손함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아서 산행에서 한수 배웁니다.

권오헌 선생님께선 후원회 산행에 참석자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 더 많이 참가하여 한 달에 한 번 산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산행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좋은 추억산행에 참가해주신 회원님 고맙고,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2004년을 시작하는 신년인사 모임

김혜정 간사

1월 24일 점심무렵,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새해인사 모임이 있었다.

선생님들께서는 약속시간에 맞춰 미리 와 계셨고 후원회원들도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2004년을 시작하는 신년인사모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해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은 비슷한데 지난 해를 돌아보는 아쉬움과 새해의 희망을 생각하는 두 가지 마음일 것이다.

통일 사업을 하시다 오랜 옥고를 치르시고 백발이 성성한 후 세상에 나오신 선생님들은 어떤 느낌으로 새해를 맞으실까. 1차 송환되신 선생님들을 이어 2차 송환 대상으로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엔 기다림의 세월이 애틋하게 아니 피눈물로 남아있을거라 생각해본다.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땅, 어린 자식을 눈에 넣고 평생을 가슴앓이 하시며 살아오신 선생님들, 가시고 싶으셨을 그 곳에 올해엔 꼭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후원회원들이 대부분 기혼인 탓에 모임을 하면 아이들이 회원들 수 만큼 모인다.

엄청 추운 날씨에도 집에서 가져온 음식과 떡국을 끓여서 먼저 선생님들을 대접해 드린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소박한 밥상에 죄송스런 마음이 먼저 든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후원회원들의 다정한 마음이 들어간 음식이니 떡국도 반찬도 참 맛있다.

부엌에서는 튼실한 살림꾼들인 회원아줌마들이 저마다 한가지씩 일을 맡아 해낸다. 사람을 먹여살리고 사람을 키워내는 자랑스런 아줌마들.부엌일이 힘들다지만 오늘 같은 날엔 보람이 있으니 즐겁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세배를 왔다. '통일세상을 열어가는 관악청년회'와 '겨레사랑 관악시민회' 회원 여러분들이 방문하여 선생님들께 세배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었다. 청년들의 활기찬 기운이 만남의 집에 퍼지니 새해를 맞는 마음에 희망이 더해진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길을 가는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만남의 자리는 언제나 훈훈하다.

저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야 얼마나 많을까마는 정순택 선생님의 대표 인사말씀을 듣고 다른 댁에 인사가야한다는 청년, 시민회원들을 마중했다.

이번에는 부엌에서 식사를 마친 우리 후원회원들이 세배를 드렸다.

"선생님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소원성취하십시오"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가족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조국이 통일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선생님들과 후원회원 간의 인사를 마치고나니 정말로 2004년이 시작됐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2004년 올해엔 어떤 일들이 우리를 맞을것인가. 어떤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무쪼록 모든 면에서 후회를 덜 남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에서

이런일이있었어요

2004년 1월

01 범민련 지도부의 파병반대 단식농성 22일째. 양심수후원회대표로 1일 단식농성에 함께하다. 단국대 서울시립대, 명지대, 서울대, 전남대 등 대학생들과 통일연대, 인천연대 사람세상, 한청, 안양사랑청년회 등 합동세배 - 함께 윷놀이 등. 권영길 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 4월혁명회, 민자통, 통일광장선생님 등 격려방문 - 하루 농성을 마치고 정리집회를 열다. 나창순 범남본의장의 여는말, 김영승, 권오헌, 노중선, 도광호, 이천재 대표와 학생대표, 청년대표등 결의발언 등 있었음.

-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정순택,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과 안학섭, 이혜경 선생님 등이 함께하는 새해맞이 자축연을 열었습니다. 푸른영상에서 공은주씨가 와서 떡국을 끓였고 삼겹살을 구워 새해 축배를 함께 했습니다. 권오헌 선생님들께 새해인사를 드렸습니다.

02 종로구청은 광화문 교보빌딩앞에 세워진 자주평화촛불기념비를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하다. 구청은 도로법 40조와 47조에 따라 도로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구조물이고 차량과 보행에 불편이 있어 철거했다고 변명, - 이에 여중생범대위 이관복대표와 최근호 상황실장, 채희병 사무국장등이 구청장을 만나 엄중 항의하고 즉각 복원 시킬 것 촉구하다.

-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와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는 고이즈미 일 총리의 신사참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열다.
- 미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과 학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6~10일까지 이북의 영변핵시설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미국의 USA투데이가 보도하다.

03 6·25 당시 미군폭격으로 희생된 400여명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 '곡계굴'에서 곡계굴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다. 천도제와 추도식을 통해 53주기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정부에 대해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다.

-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체로 자주평화촛불기념비를 강제철거한 당국에 항의하는 촛불집회를 열다.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관복 고문의 종로구청장 면담보고,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의 규탄발언등이 있었음.
- 박용길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 조만조 전 지도위원 출소장기구금양심수 이신 유기진선생님을 찾아 뵙고 새해인사를 드리다.

04 26일째 이라크파병반대 노숙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범민련농성단 격려방문하다.(노혁, 이용준, 권오헌) 지지단식농성과 격려방문을 하고 있는 청년학생등 60여명 국회앞까지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 제지로 못함. 다시 농성장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다. 전남대 경영대 조석 학생회장,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회장, 동부지역 일하는 청년회, 부산 동아대학 학생, 인제대 학생, 안산민주청년회, 춤패 '사람세상' 등 대표들이 파병반대 결의발언을 하다.

-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과 전국연합의장등을 역임했던 농민운동, 통일운동가 권종대 선생이 간암투병을 하다 별세 했음. 강남성심병원 영안실을 문상 다녀오다.

05 종로구청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자주평화촛불기념비 강제철거규탄 및 원상복구촉구기자회견'을 열다. 홍근수상임대표의 여는말,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의 규탄발언, 문대골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등이 있었음. 마치고 1월 15일까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구청에 접수시킴.

- '(사)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기념사업' 고 문익환목사 서거10주기를 맞아 서울에서 열게될 남북합동추모행사에 북측대표 7명이 온다고 발표. 대표단은 주진구 민화협 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영선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 심상호 조선종교인협의회 중앙위원, 윤창조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창덕 민화협사무총장, 림용철 민화협 사무소 과장, 리치헌 민화협 과장등.
-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992년 노동운동을 하다가 실종사한 박태순(당시 26살 한신대 철학과)씨와 76년 유신철폐운동을 하다 실종된 심오석(당시 24살 경북대 의대)씨등에 대한 경찰의 내사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료 요청을 했으나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보안자료라는 이유로 열람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공개하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4년 1월

06 조순덕 민가협상임의장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 에 계신 정순택,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께 따뜻한 방한복을 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초동 법원 앞에서 송두율교수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폐지와 송두율교수 무죄석방촉구 기자회견' 을 열다. 대책위 김건수운영위원 사회로 권오헌대표의 여는 말, 독일에서 온 라이너 베르닝교수의 증언과 관련된 발언, 김세균대표의 4차공판에 대한 성명서 낭독등이 있었음.
- 서울지법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부장판사)심리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유영구 전중앙일보 북한연구전문기자, 길승흠교수, 라이너 베르닝교수, 박호성교수의 증언과 검찰측 증인 오길남씨등의 비공개 증언이 있었음.
- 국민대학교 2003년 조현실총학생회장이 뇌종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려다 학교 앞에서 성북서 보안과 형사에 강제연행되다. 서총련 학생들이 성북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조현실 회장 면회하다.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과 부회장들 5명,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성북경찰서 항의방문, 조현실 학생 면회하다. 난소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던 조현실학생회장은 학교에서 수배생활을 하고 있었음. 공안당국은 불구속 수사방침을 세우고 조현실학생을 석방하다.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라크파병 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파병동의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2004년 투쟁선포대회를 열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범남본 이규재 부회장과 민애청 강신원 회장의 파병반대 발언, 중앙대 이경호 총학생회장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 농민운동가 고 권종대선생 민주사회장 영결식이 삼성병원 영결식장에서 있었고 10시에 경북영덕으로 발인하다. 7일 영덕 영해성당에서 장례미사를 드리고 영해 선산에 안장하다.

07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이종린.민경우 무죄석방대책위원회 주최로 '검찰의 간첩조작 규탄과 ' 이종린, 민경우 무죄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나창순 범남본의장의 여는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발언, 한상렬대책위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이어 민경우사무처장부인 김혜정씨의 부당한 국가보안법적용에 대한 가족인사말이 있었음.

- 중앙일보방송법인 중앙방송의 김영조PD 낙성대 '만남의 집' 을 방문. 권오헌 대표와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문제 인터뷰하고 정순택, 문상봉, 김영식선생님을 취재하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6· 25전쟁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키다.

08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원회와 군사상자유가족 연대 공동으로 '의문사진상법개정을 외면하는 국회법사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을 열다. 김학철 대책위 간사 사회로 허영춘 유가족 대표의 기자회견문낭독. 오종렬, 진관스님, 정광훈, 권오헌등의 규탄발언등이 있었음.

- 여의도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자회의를 열다. 남상헌, 강민조, 권오헌 상임대표와 박희영 사무국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의문사법개정촉구 유가족농성문제 의문사위원회 박동혁 사무국장 임명기각문제, 계승연대 조직강화문제등 논의.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02회 목요집회를 열다. 조순덕회장의 여는말, 장전섭, 임기란, 안학섭선생의 집시법개악규탄 발언등이 있었음.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농민연대 주최로 '한 · 칠레 FTA비준 결사저지 전국농민연대 결의대회' 를 3000여 농민과 청년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리다.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동의안 비준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적극저지로 동의안 통과가 무산되다. 한편 농민들은 비준안을 표결하는 국회로 진출하려다 경찰의 폭력 저지로 큰 충돌이 일어나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는가하면 곤봉과 방패로 맨손의 농민들 마구 폭행 부상자와 강제연행자가 속출하다. 이날 학생들도 마구 연행하여 2004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등 4명이 서초서에 연행조사를 하고 있어 학생들이 밤늦게 항의집회와 즉각석방을 촉구하다.

-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 합의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스트라이커부대 반전 평화시위를 하다. 구속된 학생들의 호송차를 저지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준엽학생에게 2년 6월 실형을 선고하다.
- 서울고법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의 주모자로 몰려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재심공판을 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법의 정의와 후세를 위해 과거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고 소감을 밝힘.
- 동국대 중강당에서 조국농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전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를 열다. 범민련성원과 사회단체대표 청년,학생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범남본 이경원 사무처장 사회로 나창순 의장의 대회사,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연대사, 범민련 경인연합 이태형의장, 한청 전상봉의장, 한총련 결사대 박주은대장의 정치발언 노래패 '희망새', '우리나라' 문예장작패 '들꽃' , 가극단 '미래' 등 문화공연도 있었음.

09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KAI858기사건유족회' 와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공동으로 858기 실종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과 최병렬 대표는 사건을 재조사하라, 특검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의 진상규명노력, 국정원의 공개토론, 소설 '배후' 작가와 출판사에 대한 소송취하 등을 촉구하다.

-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판사는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맥팔랜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다.
- '후원회소식' 147호 발송작업이 만남의 집에서 있었음. - 문상봉, 김영식, 송창학, 노혁, 변의숙, 양계숙, 이용준, 김혜정간사 등 애쓰다.

10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통일을 가로막는당, 미국에 빌붙는 당, 부패원조 도둑정당, 한나라당 해체 결의대회' 를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의장의 대회사, 윤한택 실천연대 대표, 이명수 서총련당선자의 규탄발언,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역사, 문학,통일,환경등 기행을 해오고 있는 옴시롱감시롱은 회원,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충남 서산 박근직 회원집에서 새해 출발 총회를 열고 2004년을 이끌 으뜸일꾼으로 김재현 회원을 뽑고 2003년 쓰고 남은 돈을 정순덕선생님 간병비조로 양심수후원회에 그리고 일부는 이라크파병 범민련 단식농성단에 보내기로 결의하다. 옴시롱감시롱은 이어 다음날 안면도 자연수목원과 꽃지해수욕장 등을 둘러보고 모든 행사 마침.

11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변인은 영변핵시설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존 루이스 교수와 로스알러모스 국립핵연구소 전소장, 지그프리드 핵커등 일행에게 '핵억제력' 을 보여주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다.

12 이라크파병반대 범민련 반미애국단식농성장 격려 방문하다.

- 정순덕선생님을 5년째 무료 입원치료를 해주고 있는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 이강일 원장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사무실을 내시고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찾아 뵙고 축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13 월간 '작은책' 독자사업부 박필성씨 사무실방문, 매달 양심수 21명에게 1년간 '작은책' 을 보내주기로 하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국회의원들이 '고구려 역사왜곡에 대한 공청회' 를 열고 중국의 우리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대응책을 세울것 등 주장.
-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SOFA개정 국민행동,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 평통사등 공동으로 제5차 반미연합집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부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용산기지잔류부지 제공반대, 평택 미군기지 시설확장 반대, 스토리사격장 불법공사 중단, 맥팔랜드 즉각구속 등을 촉구하다.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있은 열린광화문통일포럼에 초청강연을 한 리영희교수는 '남북모두 변화를 통한 접근으로 상호체제에 대한 수렴적 통합을 이루어 내야한다' 고 주장

14 서초동법원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방북모략군 황장엽 법정참고진술 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이규재

범남본 부의장의 여는 말,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의 규탄발언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서울지방법원 기자회견장에서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황장엽 증인채택과 비공개 재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신정완 교수 사회로 권오헌 대표의 황장엽 증인 채택의 부당성과 공개 재판 원칙을 강조하는 규탄발언, 박호성교수의 기자회견문 낭독, 정정희 여사의 송두율교수 외부진료와 관련 재소자 인권문제와 건강권 침해에 대해 규탄발언을 하다.
- 양심수후원회 신년하례모임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있었음. 박용길, 김영옥지도위원, 노중선, 강정구 감사, 김지영, 김호현, 이정규, 모성룡, 한상권, 이기욱, 권오헌 등 운영위원, 김혜정간사, 나정옥회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박용길 장로님의 새해 덕담이 있었고 2003년 4~12월까지의 재정보고 활동보고가 있었음. 또한 정순덕선생님간병비 마련을 위한 '서화전'을 열기로 하고 제 16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2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온 힘을 다하기로 결의.
- 평통사, 자통협, 민주노동당 등은 인천공항에서 용산기지 이전 재협상, 협상단 전면교체 미래한미동맹회의 즉각중단등 피켓시위를 하며 미래한미동맹회의에 떠나는 차영구 단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다.
-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소설가협회는 '중국역사왜곡저지와 고구려역사 지키기위한 결의대회'를 열다. 협회는 이북 조선작가동맹에 보내는 동참촉구문을 통해 '고구려 벽화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공동노력하고, 남북소설문학교류위원회를 설치하자' 고 제안

15 민가협 503회 목요집회. 여는말 임기란 전 상임의장, 집시법개악규탄 성명서 낭독에 조순덕 상임의장, 사회보호법폐지발언에 사회보호법출소자 대표, 이관복여중생범대위고문의 자주평화 촛불기념비 강제철거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덕성여대 학생회관에서 10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문경식 9기 부의장을 10기 총연맹 의장으로 추대하고 공식출범식을 갖다.
- 이 땅의 자주 · 민주 · 통일을 위해 한 평생을 고난과 헌신을 다해오신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김영옥 선생님의 70생신을 맞아 남민전 관련 동지들과 양심수 후원회원이 공동주선하여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조촐한 저녁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행사를 극구 거부하여 공동주선자들 차원에서 제한된 인원만 초청했습니다. 권오헌의 진행으로 오늘 모임의 성격과 김영옥선생님 약력소개, 생신케익 자르기와 축하노래가 있었고 2부 순서는 노혁 회원의 사회로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 안재구 남민전 동지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축사, 김영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이덕우변호사, 임미영회원 등이 선물드리기 등이 진행되었고 전창일 선생님의 건배 제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생소원이 이루어지기 빌겠습니다.

16 여의도 국회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국회국방위원회의 파병안 반려와 추가조사단 파견공청회 개최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상임대표의 여는말, 주종환 대표 박준성정책위원장의 규탄발언 한상렬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종로구청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촛불기념비 원상복구 거부 종로구청 규탄 종로구청장 퇴진 촛불기념비 재건립추진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말, 임기란 민가협전상임의장, 서경원고문의 규탄발언 이선희 민주노동당 종로 지구당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늦봄 문익환목사 서거 10주년 추도단으로 온 북측대표단을 맞는 환영만찬이 10주기 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12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림. 황인성 통일맞이 이사 사회로 이재정 이사장의 환영사, 주진구 북측 대표단장(민화협부의장)의 답사, 남측 이창복의원과 북측 유영선 조평통 중앙위원의 건배 제의가 있었고 마지막 순서로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회고담, 문성근씨의 가족인사말등이 있었음. 북측대표단과 남측준비위 발언자들은 늦봄 문익환목사의 통일운동에 대한 헌신을 찬양하였음.
-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숭실대에서 열린 제4기 임

원선거에서 이수호위원장과 이석행 사무총장 후보조로 4기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다.

- 용산 미군기지 5번게이트 앞에서 평통사, 자통협,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노동당, SOFA개정국민행동, 여중생범대위등은 독극물 한강방류로 실형선고를 받은 맥팔랜드 신병인도 촉구 및 공개수배운동 선포기자회견을 열다.

17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고 문익환 묘소에서 늦봄 고 문익환 목사 10주기 추도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묘소참배와 추도식이 열렸음. 유원규 목사님 사회로 이해동 덕성여대 이사장과 주진구 북측 민화협 부회장의 추도사, 김형수시인의 추도시 낭송,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노래 '그대오르는 언덕', 가족 인사말 등이 있었고 유족과 북측대표단 행사준비위 대표들 순으로 헌화가 있었음. 행사를 마치고 북측대표단은 수유리 '통일의집'을 방문. 준비해 온 붓글씨(늦봄, 봄길)와 자수작품을 증정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통일연대 2004년 신년 결의대회'를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렬 상임대표의 대회사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연합의장, 문경식 전농의장, 이경수 서총련의장의 결의 발언, 이승호 한청사무처장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소속단체 성원과 청년학생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미국과 반통일 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고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 개척,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간통일운동 자유쟁취, 6·15공동선언고수 이행을 다짐.
- 인사동 문화거리 열린마당에서 양심수후원회등 70여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독도역사찾기 운동본부주관으로 '독도주권찾기와 일본영토 팽창 야욕분쇄를 위한 국민결의대회'를 열다. 정성희씨 사회로 이봉우 본부장 대회사,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장, 심재권 국회의원등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을 규탄하다.
- 효창공원 백범기념관 대강당에서 늦봄 고 문익환 목사 서거 10주기를 추모하는 '평화통일 기원의 밤' 행사가 행사준비위 주최로 열리다. 박용길 장로님등 유족들과 북측 대표단 행사준비위 대표, 사회각계대표, 청년학생 등 8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1부행사는 이승환 행사준비위 기획정책위원장 사회로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사를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 안보특보가 대신 읽었고 정동영 열린 우리당의장의 추도사도 있었음. 이어 북측 주진구 민화협 부회장과 남측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추모연설, 고은시인과 북측 장해명시인의 추모사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윤창조 선전부장이 낭송했으며 마지막으로 배은심 이한열 열사 어머님의 평화통일기원문을 읽었고 문목사의 둘째아들 문이근씨가 가족인사말을 했음. 2부 평화통일기원의 밤 문화공연에는 국립오페라단의 합창, 문소리씨의 시낭송, 이정렬, 김원중, 노래패 우리나라, 안치환씨 등의 노래공연이 있었음.

18 양심수후원회 1월 산행의날 - 17일부터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인데다 하루종일 눈이 내려 최고 25cm까지 흰 눈이 덮인 북한산 산행에 모두 9명이 함께 하다. 눈은 내리고 있으나 춥지 않았고 아직 얼어붙지 않아 산행의 최적의 날이었음. 평창동 북악호텔앞에서 올라 일선사 거쳐 정릉길로 내려오다. 점심은 산에서 내려와 뒷풀이 겸해 소개하는 시간,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고 문익환목사(양심수후원회 초대회장)추도행사 이야기들을 하다. 양계숙, 신현익, 나순철(처음 나오신 회원), 김재현, 이용준, 송창학, 송인석, 송인영, 권오헌 함께하다.

- 강남 한 식당에서 늦봄 문익환 목사 10주기 북측대표단 환송만찬이 행사준비위 주최로 열리고 한충목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환송의 말, 주진구 북측단장의 답사 등이 있었고 정은숙 문목사님 며느님의 가족인사말 등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북측대표단은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행주산성을 둘러보았음. 대표단은 20일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국할것임.
- 한·미 두 나라는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에서 16-17일 사이 열린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회의'에서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를 포함한 용산기지 주둔 미군부대를 오는 2007년까지 한강 이남으로 이전키로 합의하고 이전에 따른 평택 땅구입비, 건축신축비는 물론 이사비용까지 30~50억달러에 이르는 이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키로 합의하다. - 한편 이날 국방부 정문 앞에

2004년 1월

서 평통사, 자통협등 시민사회단체는 용산기지이전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비용부담 등 굴욕외교를 규탄하다.

19 태평로 조선일보사 부근에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와 통일연대등은 '숭미외교 감싸는 조선일보 망발규탄집회' 를 열고, '숭미사대매국외교를 부추기는 보도, 자주외교와 동맹외교의 이분법에 기초한 자주외교를 왜곡 폄하하는 보도 등을 규탄하다.

-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하 대책위원회는 199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귄터그라스 교수가 송두율교수사건 담당 재판부에 보낸 공개서한을 송교수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유럽대책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렸다고 밝히고 이밖에도 1000명이 넘는 독일의 각계인사가 송두율교수 석방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냈다고 발표하다.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족문제연구소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모금운동이 지난 8일에서 19일까지 5억원을 넘었다고 발표하다. 처음 계획은 3월 1일까지 1억원, 8월15일까지 5억원을 목표로 했었음.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모금운동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5억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시작되었음.
- 이른바 '아주대학 자주대오 조직사건' 1차공판을 하루 앞두고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01년 부총학생회장 최석진씨를 강제연행한데 이어 19일 방청을하고 나오던 2001년 맹관호 총학생회장을 강제연행하여 사건을 확대하려는 만행을 저질렀음.

20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안국동 천주교 통일후원회 사무실에서 실행 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송환과 비전향장기수와의 상봉모임문제, 2차송환촉구문제, 조직강화문제, 재정문제 등 논의하다.

- 이라크파병반대 반미애국 단식농성 41일째를 실천하고 있는 범민련 농성장 격려방문하다.

22 민족 명절 '설' 이었습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하다 구속된 부안 반핵대책위 이인열님을 홍성교도소에 가서 면회했습니다. 모든 분들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23 이라크파병반대 반미애국단식농성단 격려방문, 통일뉴스일꾼들 격려방문, 정리집회에서 파병반대 발언하다. 안양대, 명지대, 권오헌 등.

24 민족명절 설을 맞아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통일광장(출소장기수)선생님을 모시고 양심수후원회원들 함께 세배 드리고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정순택, 문상봉, 김영식, 유기진, 안학섭, 권주환, 신원수, 강담, 송세영, 변숙현선생님이 함께 하셨고 후원회원들은 김재현, 이득형, 양계숙, 노혁, 도은주, 노혜민, 송창학, 주경임, 송인석, 송인영, 손일순,범수, 신현부, 모지희, 신준철, 신다인, 이승미, 이재필, 나순석과 따님, 이용준, 김혜정, 권오헌이 함께했음. 선생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평생 염원 이루어지기 빕니다.

- 양심수후원회원(옴시롱감시롱)들 여의도에서 46일째 이라크파병반대 반미애국 단식농성중인 범민련 농성장에 격려 방문하고 옴시롱감시롱 총회에서 결의한 격려위로금을 김재현 으뜸일꾼이 전달하다. (김재현, 양계숙, 이용준, 권오헌 함께)

26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으로 정순덕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제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뚜렷하게 나아지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잡숫고 있습니다. 이강일원장님과 정선생님, 간병 아주머님과 병원 밖에 나와 식사를 함께 하며 한결같이 치료를 해주시는 이강일 원장님께 감사드렸습니다.

- 1987년 실종된 KAL858기 가족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국정원 등에 17년간 의혹 속에 묻혀있는 KAI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면담 요청을 하다.
- 가칭 2004년 총선 평화연대(준)는 총선에서 반평화통일 주장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하며 대북정책과 관련 정치권의 정략적 새깔론 접근을 차단 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힘. 낙선운동 선정기준으로는 ①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북정책을 전쟁과 색깔론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한 정치인 ②선거때마다 색깔론을 제기하며 득표에 연결시키는 정치인 ③당론을 내세워 대북정책과 관련 무조건 반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 ④민족화합과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정치인 등이라고 하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교도소 안에서 취

침시간에 전등을 환하게 켜놓는 것은 수감자의 행복추구권중 수면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폭행, 자살, 자해, 도주 등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침때 불빛의 밝기를 낮출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

27 서울지법 형사 합의 24부(재판장 김대경부장판사) 심리로 송두율교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건 6차 공판이 진행되다. 이날은 변호인측 증인으로 권만학 경희대 경영대학원장과 박순정 동국대교수가 나와 증언하다. 권교수는 6차까지 진행된 베이징과 평양에서의 남북 학술회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며 송교수는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남쪽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했고 학술회의 자체도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루어 냈으며 남북사이의 화해 협력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했음. 박교수도 송두율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주체사상을 전파하기위한 방법이란 검찰주장을 반박하고 문화인류학의 사례를 들면서 모든 학문 방법의 하나로서 대상의 실체적 진실과 사회구조의 원리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접근방법이라고 주장하다.

28 여의도 이라크파병반대 범민련 단식농성장 격려 방문하다.

명동성당 별관에서 범하 이돈명선생의 '돈명이 할아버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정남 간행위원의 초청말, 박형규목사, 조준희변호사, 강만길 총장, 함세웅신부의 축사, 이돈명변호사의 답사가 있었고 축하 만찬이 있었음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부페식당에서 이종린선생, 민경우 사무처장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이종린선생, 민경우사무처장 무죄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리다. 한충목집행위원장 사회로 참석자(단체)소개, 한상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의 인사말,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의 인사말, 사건 소개(영상), 민경우사무처장의 후원의 밤에 보내는 편지글 낭독, 민경우 사무처장 부인 김혜정씨의 편지글 낭독 등이 있었으며 '희망새', '관악청년회', '우리나라' 등 문화공연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관악청년회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통일연대 소속회원 뿐아니라 종단, 민화협 등에서도 함께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모두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합창하며 마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임미영, 송창학, 노혁, 이승미, 이재필, 이용준, 권오헌 등 함께함.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준) 주최로 '북녘농민에게 못자리용 비닐보내기 기자회견' 을 열고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다. 비닐보내기의 중심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은 '남쪽의 따뜻한 마음이 북녘동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운동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고 말하다.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겨레문화재단이 주최한 제6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이 열려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에게 주어지다. 임동원 전특보는 수상과 함께 강연을 통해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규탄하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와 의문사유가족연대는 의문사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노숙농성 선포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다.

29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이 주최하는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504회 목요집회를 신고없이 열다. 여는 말 임기란,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조작사례 등을 2004년 아주대 총학생회장이,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 사례를 안은미 어머님이 발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사면, 정치수배해제 촉구하는 권오헌 공동의장 발언 등이 있었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남북사이에 경제와 문화의 교류협력을 민간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 81명의 발기인등 1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다. 재단이사장으로 한완상 한성대총장, 부사장에 송영길, 임종석의원과 장인화 파인인터내셔널 대표가 선임되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이북에서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과 조선 민족경제연합회 등에서 축전이 왔고 김근태의원, 조건식 통일부 차관 등이 축사를 했음.

대학로 홍사단 강당에서 고구려 역사문화재단 창립총회가 열리다. 재단이사장에 선출된 이이화선생은 문화재단은 앞으로 아차산 고구려 보루성 복

원 및 국가사적지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구려역사박물관설립 및 유적지공원조성 등 사업을 할 것이라 함.

-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는 '굴욕적인 용산기지이전 합의 규탄. 졸속적인 한국형 헬기사업(KMM)추진반대. F-15K 군납비리 진상규명' 등 33차 평화군축집회를 열다. 집회에서는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에 쓰라며 평화군축집회주장을 국방부에 전달하다.
-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전송으로 남·북·해외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열어 올해의 운동방향과 관련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아래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를 조국통일운동의 기본구호로 하는 등 6개항의 결의서를 채택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시고 있는 김재원(고 이재문선생 부인)님께서 지난 15일 낙상하여 골반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고 강북삼성병원 810호에 입원 수술 치료를 받고 있음을 뒤늦게 알고 오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80년 광주민중항쟁을 배후조정했다하여 신군부가 조작한 내란음모사건으로 1981년 사형선고를 받았단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에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려 한 행동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를 내리다.

30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재조사사업과 관련,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사건의 고 이재문선생 옥중의문사에 대한 조사1과 팀장과 조사관들에게 남민전(준)사건의 성격과 고 이재문선생 옥중사망 의혹에 대해 증언하다(권오헌)

-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12기 한총련임시대의원대회 사전 행사로 '열사람의 큰 걸음 12기 한총련 크게 웃자' 부제로 새해 맞이 문화제가 열리다. 사회단체대표로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의장과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이 축사를 하다. 이어 한총련 성원들의 노래와 춤, 노래극 등이 이어지다.
-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무기선고를 받고 풀려난 황대권씨가 '거듭된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갱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다.

31 연세대 대강당에서 있었던 12기한총련 대의원 대회에서 12기 한총련의장과 15기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을 경선으로 선출하다. 의장선거를 제적 대의원 622명 가운데 349명이 참석하여 252표를 얻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백종호 총학생회장이 뽑혔고 조통위원장은 357명 가운데 330명의 찬성투표로 경기대학교(수원) 김성일 총학생회장이 당선되다. 새로 뽑힌 한총련 의장과 조통위원장은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기 한총련의 총노선을 이어 새로운 학생운동 조직건설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다. 조통위원장은 2004년 통일정책사업으로 ①대규모 남북대학생교류사업 ②아테네 올림픽에 맞춰 Corea 국호사용운동 전개 ③6·15공동선언 기념탑 건립 사업 등을 펴나갈 것이라 했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파병반대 한나라당 해체 범국민대회'를 소속단체성원, 한총련 학생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다. 한총련 문예단의 사전행사에 이어 한상렬 상임대표의 대회사, 새로뽑힌 12기 한총련 백종호의장과 이규재 범민련부의장의 정치발언,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 투쟁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 광화문 교보빌딩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결사 저지, 미국의 이라크 점령중단 이라크파병반대 결의대회'를 열다. 정용준 민중연대 자주 평화국장 사회로 민중의례에 이어 한총련 문예단의 춤과 노래 공연, 오종렬 상임대표의 대회사,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장의 정치발언, 12기 한총련 백종호의장의 결의발언, 유영재(평통사)씨의 미군 평택이전 계획규탄발언, 다함께 김광일 대표의 파병반대 발언, 마지막으로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연합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 양심수 96명에게 10,000원씩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150만원을 보냈습니다.
- 양심수 5명에게 '말' 지를 보냈습니다.